

충청남도 기후위기대응 인식도 조사

2021년 06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 추진배경

- 인식도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 및 교육 참여 의지를 형성하기 위함

2. 과제 목적

- 충청남도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현황 파악
- 충청남도 및 타 시·도 인식도 차이 조사
- 인식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기관간 협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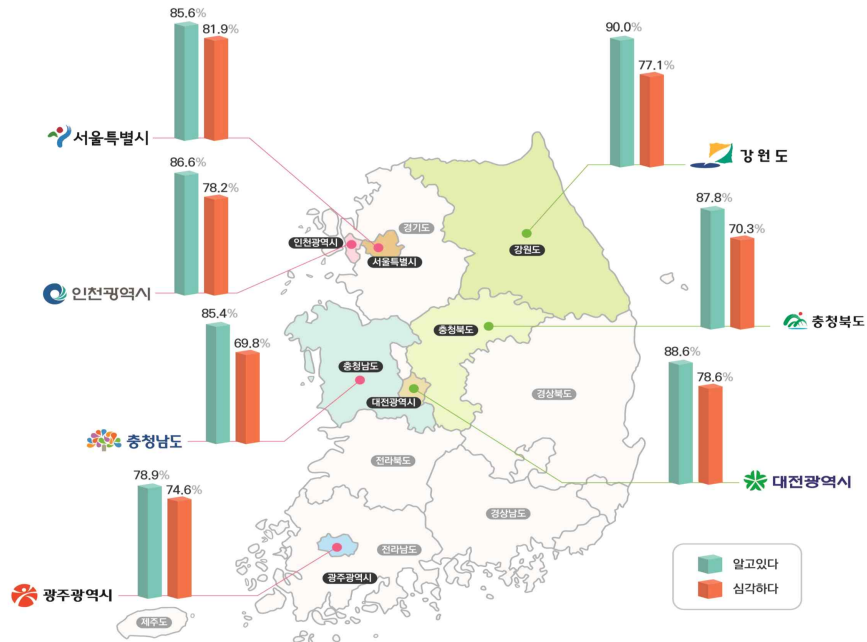
3. 과제 개요

- 추진기관 :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 추진
- 조사기관 : 주식회사 디앤알
- 조사기간 : '21.5.11. ~ 5.17.(약 7일)
- 조사대상 : 충청남도 및 타 시·도 포함 1,000명 대상(10~60대, 지역 인구비례 할당)
 - 충청남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 조사방법 : 충남도민 기후위기 인식도 모바일 설문조사
- 표본 수 : 10대 200명, 20~60대 800명
-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에서 $\pm 3.1\%$
- 주요내용
 - 기후변화 인지여부
 -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인지 경로
 -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수준
 - 기후변화 현상별 인지여부 및 체감여부(총 7개 부문)
 - 기후변화적응 노력 주체
 - 기후변화교육 경험 여부
 - 기후변화교육 참여 의지여부

4. 주요 결과

○ 충청남도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인식수준과 체감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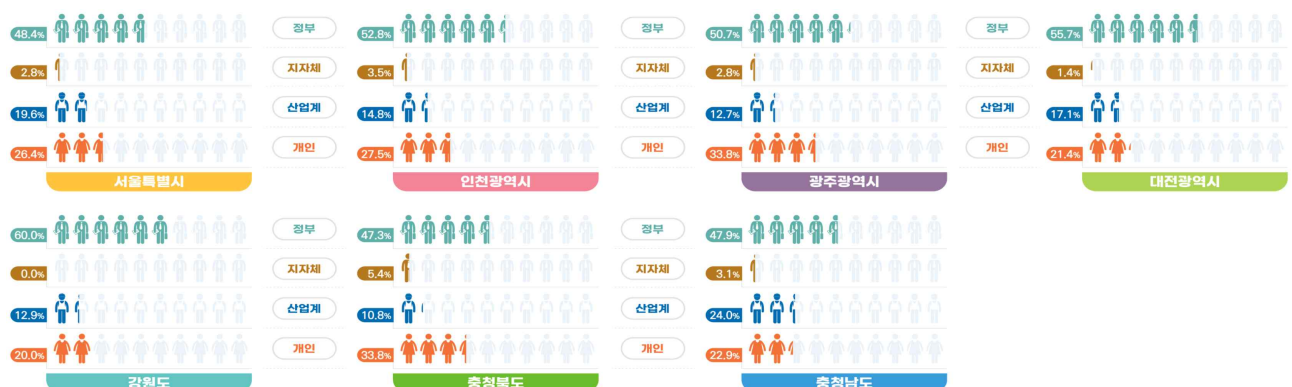
- (인식수준) 강원 > 대전 > 충북 > 인천 > 서울 > 충남(6위) > 광주
- (체감정도) 서울 > 대전 > 인천 > 강원 > 광주 > 충북 > 충남(7위)



[그림 1-1] 충남의 기후위기대응 인식수준과 체감도

○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체별 노력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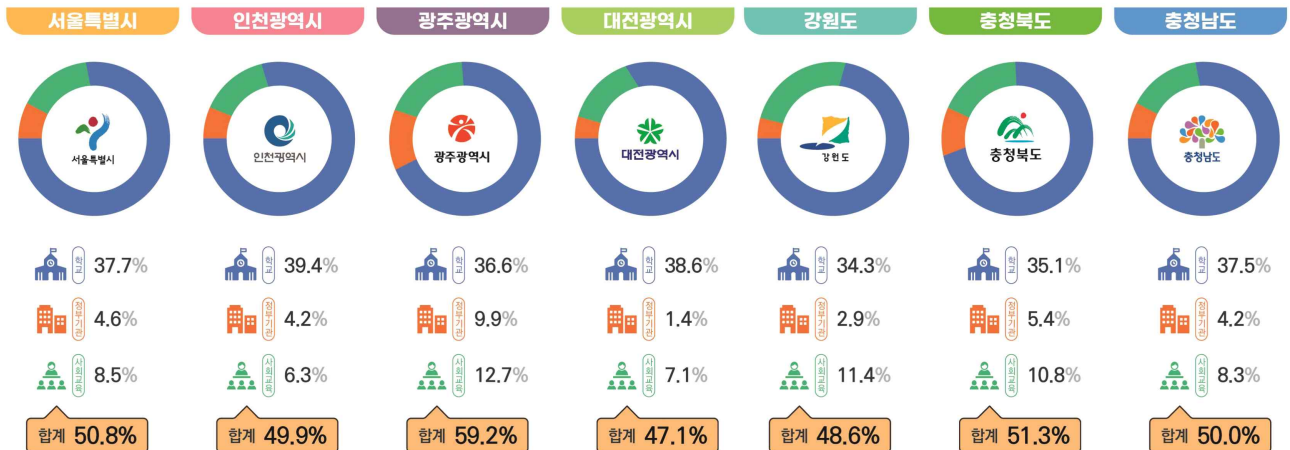
- (정부) 강원 > 대전 > 인천 > 광주 > 서울 > 충남(6위) > 충북
- (지자체) 충북 > 인천 > 충남(3위) > 서울 > 광주 > 대전 > 강원
- (산업계) 충남(1위) > 서울 > 대전 > 인천 > 강원 > 광주 > 충북
- (개인) 광주 > 충북 > 인천 > 서울 > 충남(5위) > 대전 > 강원



[그림 1-2] 충남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주체

○ 충청남도의 기후변화교육 참여경험과 수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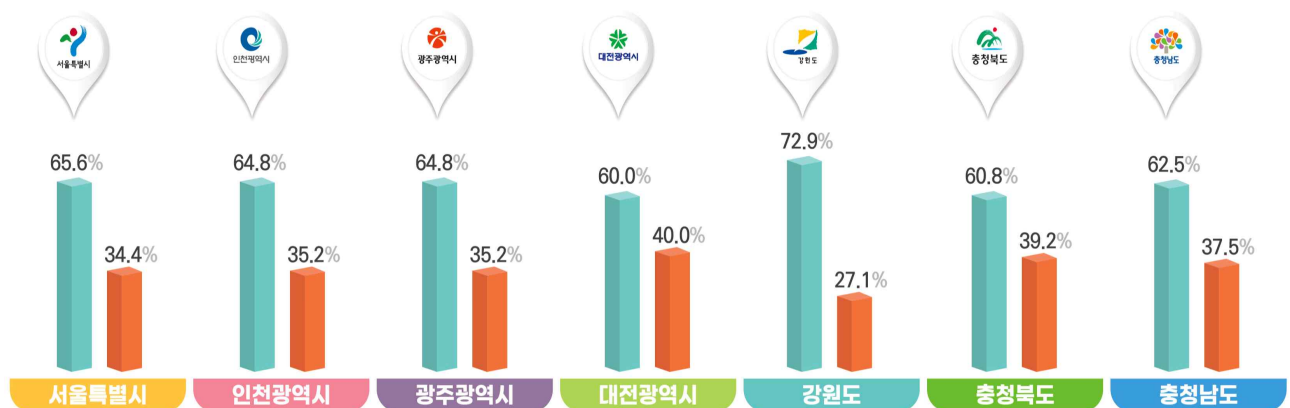
- (교육경험) 광주 > 충북 > 서울 > 인천 = 충남(공동 4위) > 강원 > 대전
- (학교) 인천 > 대전 > 서울 > 충남(4위) > 광주 > 충북 > 강원
- (공공기관) 광주 > 충북 > 서울 > 인천 > 충남(5위) > 강원 > 대전
- (시민단체) 광주 > 강원 > 충북 > 서울 > 충남(5위) > 대전 > 인천



[그림 1-3] 충남의 기후변화교육 참여경험

○ 충청남도의 기후변화교육 참여의지

- 강원 > 서울 > 광주 > 인천 > 충남(5위) > 충북 > 대전



[그림 1-4] 충남의 기후변화교육 참여의지

- 도내 기후위기대응 인식수준 파악을 위해, 서울특별시(대조군)와 기후변화연구기관이 위치한 4개 광역지자체(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권 3개 광역지자체(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함

- 충청남도의 현 수준 파악과 인식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하여 조사항목 중 인식도, 체감도, 노력의 주체, 교육경험과 참여의지 항목을 대상으로 7개 광역시·도(표본수가 작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외)의 분석결과를 비교함
- 분석결과, 도의 기후위기 인식수준과 체감도는 각 6위, 7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산업체(1위)와 지자체(3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 한편,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참여경험은 공동 4위로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중심의 교육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참여의지 또한 5위를 기록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충남형 그린뉴딜, 시·군과의 탄소중립종합대책 협력, 환경교육도시 기반구축을 통한 도민 환경합습권 보장 등)과 우수성은 높으나, 도민 체감과 인지도 등이 낮아 관련 홍보·교육보급이 시급함

5. 교차분석 결과

○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 응답자 분포현황

- 응답자 총 1,000명 중 성별 비율은 남자(50.5%) > 여자(49.5%)로 두 성별이 거의 비슷한 분포도를 보임
- 연령대별 응답자 비율은 만 14-19세(20.0%) > 만 50-59세(17.6%) > 만 40-49세(17.3%) > 만 20-29세(15.3%) > 만 30-39세(15.2%) > 만 60-69세(14.6%) 순으로 높고 청소년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고 만 60-69세 연령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거주지역별 응답 분포도는 서울(45.9%) > 인천(14.2%) > 충청남도(9.6%) > 충청북도(7.4%) > 광주(7.1%) > 대전 = 강원도(7.0%) > 세종(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응답비율은 전문대/대학교 재학/졸업(56.0%) > 고등학교재학/졸업(27.8%) > 대학원재학/졸업(석사, 박사)(12.9%) > 중학교재학/졸업(3.2%) > 초등학교재학/졸업(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응답자 분포현황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성별	남자	505	50.5
	여자	495	49.5
연령	만14-19세	200	20.0
	만20-29세	153	15.3
	만30-39세	152	15.2
	만40-49세	173	17.3
	만50-59세	176	17.6
	만60-69세	146	14.6
거주지	서울특별시	459	45.9
	인천광역시	142	14.2
	광주광역시	71	7.1
	대전광역시	70	7.0
	세종특별자치시	18	1.8
	강원도	70	7.0
	충청북도	74	7.4
	충청남도	96	9.6
학력	초등학교재학/졸업	1	0.1
	중학교재학/졸업	32	3.2
	고등학교재학/졸업	278	27.8
	전문대학/대학교재학/졸업	560	56.0
	대학원재학/졸업(석사, 박사)	129	12.9
총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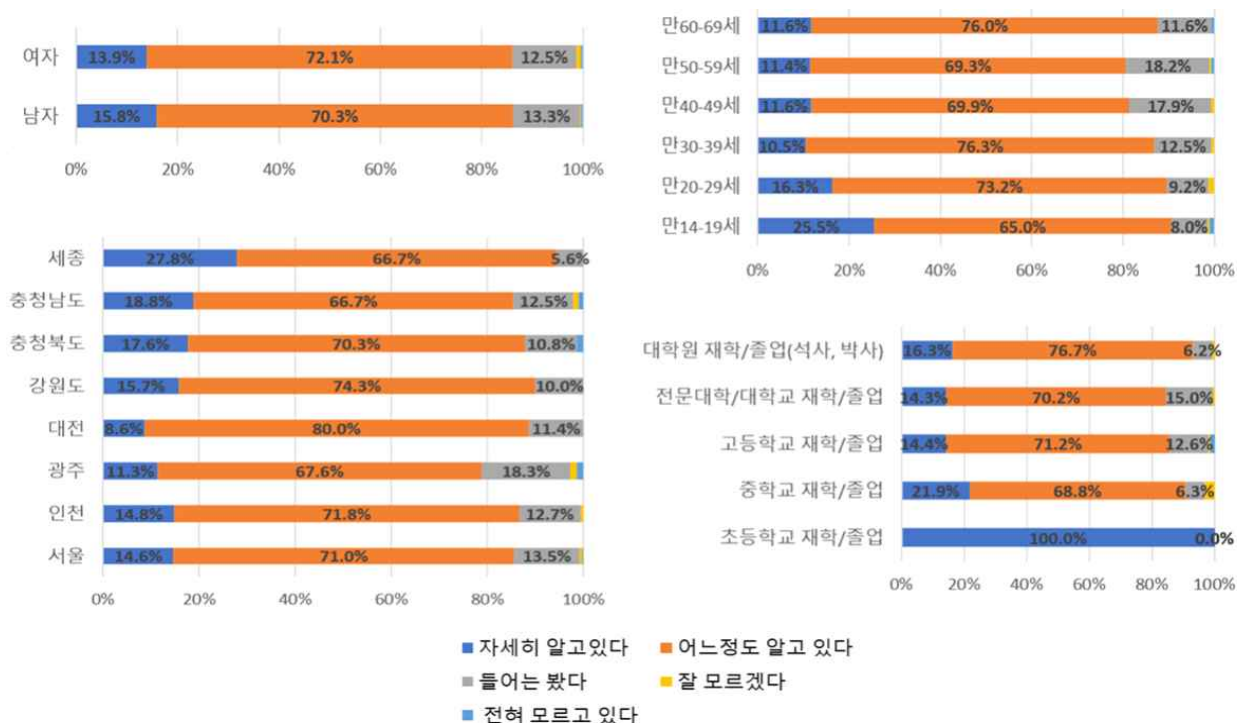
○ 기후변화 인지여부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인지여부 빈도분석 결과, 어느정도 알고있다(71.2%) > 자세히 알고있다(14.9%) > 들어는 봤다(12.9%) > 잘 모르겠다(0.6%) > 전혀 모르고 있다(0.4%)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1-2] 기후변화 인지여부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인지여부	어느정도 알고있다	712	71.2
	자세히 알고있다	149	14.9
	들어는 봤다	129	12.9
	잘 모르겠다	6	0.6
	전혀 모르고 있다	4	0.4
총계		1,000	100

- 기후변화 인지여부와 성별의 교차분석 결과, 여자와 남자 모두 어느정도 알고있다 (72.1%, 70.3%) > 자세히 알고있다(13.9%, 15.8%) 순으로 인지여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만 14-19세의 연령대의 90.5%가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인지 수준을 보였으며, 만 50-59세의 연령대의 경우 80.7%로 전 연령대에서 기후변화 인지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거주지와의 교차분석 결과, 세종지역이 94.5%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지역이 78.9%로 가장 낮은 인지 수준을 보임. 충청남도의 경우 85.5%로 조사지역 전체 평균 약 87.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력과의 교차분석 결과, 초등학교 재학/졸업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5] 기후변화 인지 여부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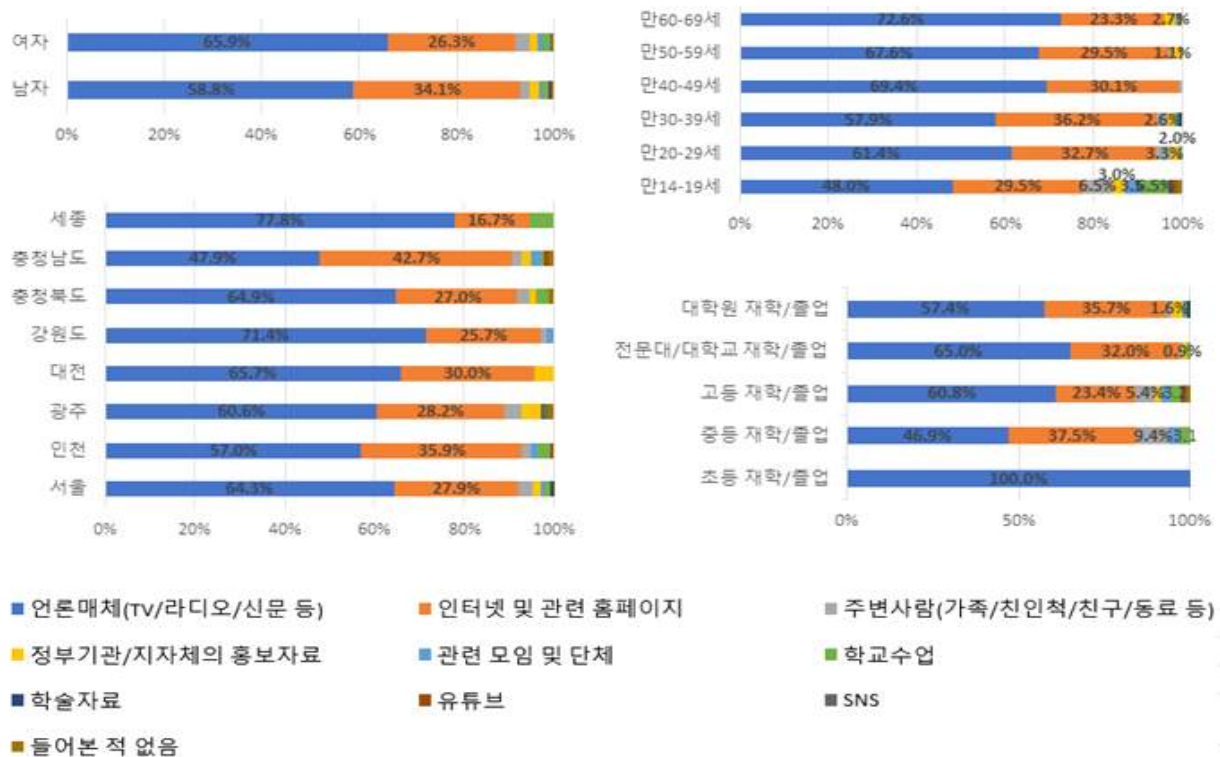
○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인지 경로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인지경로 빈도분석 결과, 언론매체(TV/라디오/신문 등)(62.3%) > 인터넷 및 관련 홈페이지(30.2%) > 주변사람(가족/친인척/친구/동료 등)(2.5%) > 정부기관/지자체의 홍보자료(1.7%) > 학교수업(1.5%) > 관련 모임 및 단체(0.9%) > 들어본 적 없음(0.4%)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기타 의견으로는 학술자료(0.2%), 유튜브(0.2%), SNS(0.1%)의 주관식 응답이 있었음

[표 1-3]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인지경로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정보 인지경로	언론매체(TV/라디오/신문 등)	623	62.3
	인터넷 및 관련 홈페이지	302	30.2
	주변사람(가족/친인척/친구/동료 등)	25	2.5
	정부기관/지자체의 홍보자료	17	1.7
	관련 모임 및 단체	9	0.9
	학교수업	15	1.5
	학술자료	2	0.2
	유튜브	2	0.2
	SNS	1	0.1
	들어본 적 없음	4	0.4
총계		1,000	100.0

- 기후변화 정보 인지경로와 성별의 교차분석 결과, 여자와 남자 모두 언론매체(TV/라디오/신문 등)(65.9%, 58.8%) > 인터넷 및 관련 홈페이지(26.3%, 34.1%) 순의 인지경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 교차분석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언론매체(TV/라디오/신문 등) > 인터넷 및 관련 홈페이지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나, 낮은 연령대일수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주변사람, 정부기관/지자체 홍보자료, 관련 모임 및 단체, 학교수업, SNS 등)
- 거주지와의 교차분석에서는 충청남도의 경우 인터넷 및 관련 홈페이지 인지경로 응답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42.7%)
- 학력과의 교차분석 결과, 중학교 재학/졸업과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경우 “학교수업” 응답비율이 다른 학력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3.1%, 3.2%)



[그림 1-6]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인지 경로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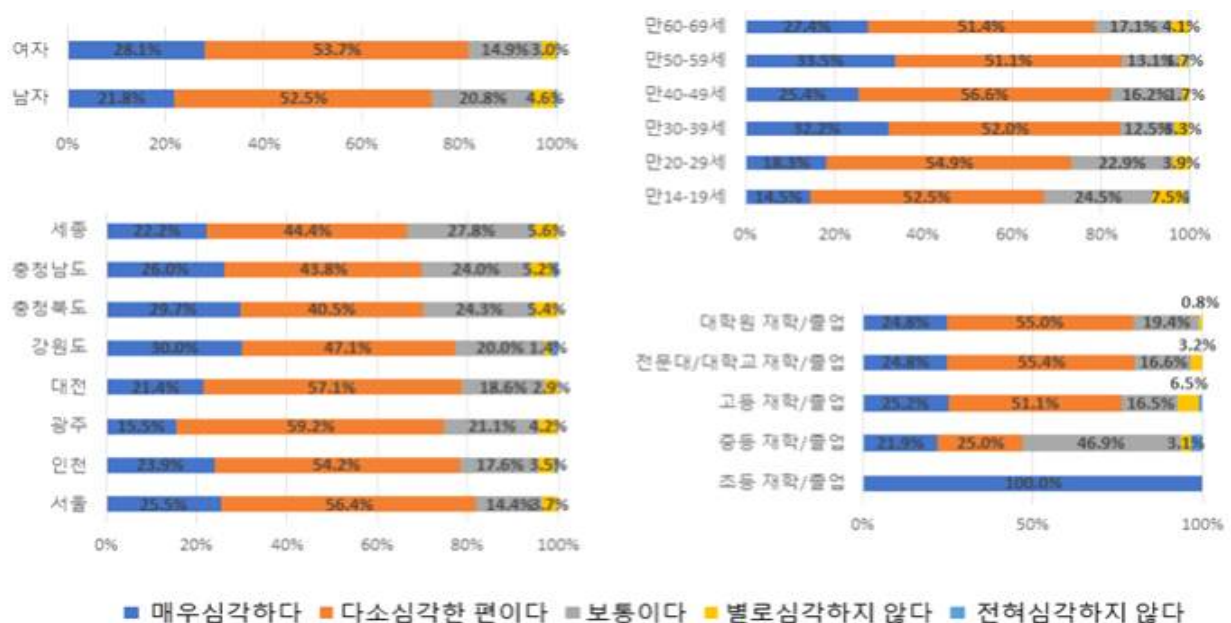
○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수준

- 기후변화와 온난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묻는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다소 심각한 편이다(53.1%) > 매우 심각하다(24.9%) > 보통이다(17.9%) > 별로 심각하지 않다(3.8%) > 전혀 심각하지 않다(0.3%)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으며 응답자의 약 78.0%가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음

[표 1-4]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수준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수준	매우심각하다	249	24.9
	다소심각한 편이다	531	53.1
	보통이다	179	17.9
	별로심각하지 않다	38	3.8
	전혀심각하지 않다	3	0.3
총계		1,000	100.0

-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수준과 성별을 교차분석한 결과, “매우심각하다”와 “다소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의 경우 약 81.8%, 남자의 경우 74.3%로 여자가 약 7.5% 높은 기후위기 인지 수준을 보였음
- 연령대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만 50-59세의 연령대의 약 84.6%가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기후위기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만 10-19세의 연령대의 경우 약 67.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거주지와와의 교차분석 결과,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지역이 81.9%로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지역이 66.7%로 가장 낮은 인지 수준을 보임. 충청남도의 경우 약 69.8%로 조사지역 전체 평균 74.6%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력별 교차분석 결과, 초등 재학/졸업의 경우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약 100%)



[그림 1-7]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수준 교차분석 결과

○ 기후변화 현상별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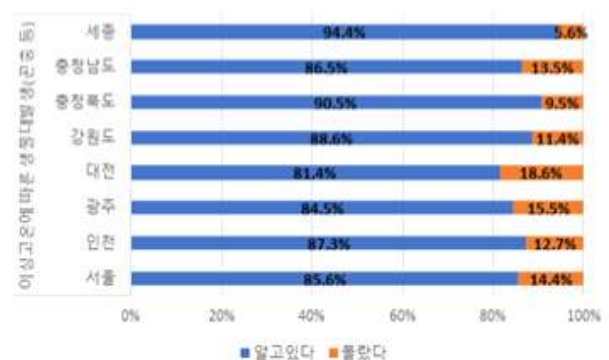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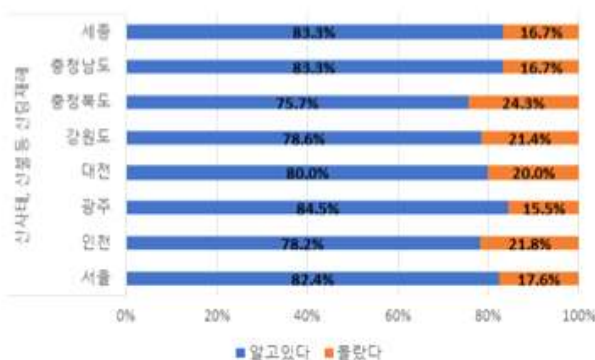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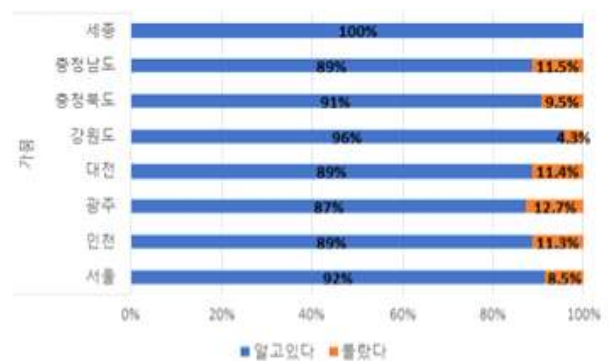
- 총 7개 부문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인지여부 빈도 분석 결과, 폭염, 열대야 부문이 97.8%로 가장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식량문제 부문이 76.7%로 가장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의 부문별 인지 수준은 폭염, 열대야(97.8%) > 집중호우 및 홍수(92.9%) > 가뭄(90.7%) >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86.3%)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81.1%) > 감염병, 질환(80.1%) > 식량문제(76.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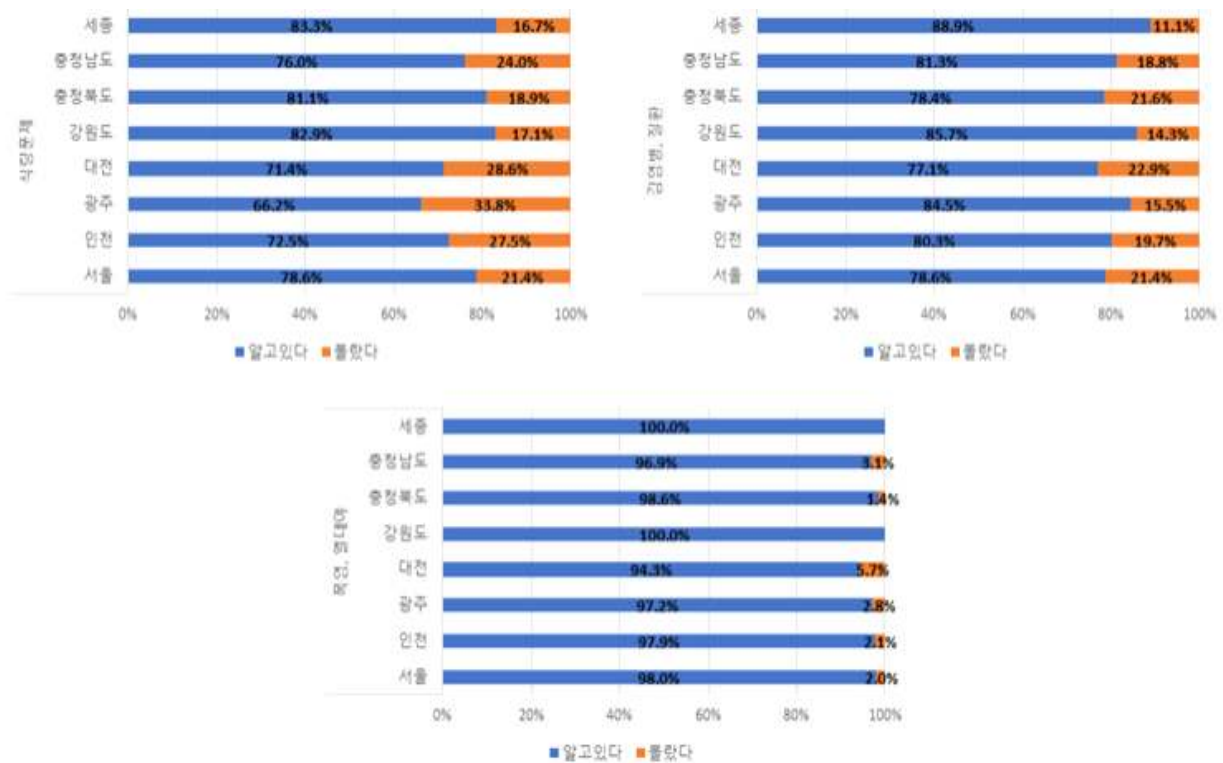
[표 1-5] 기후변화 현상별 인지여부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현상별 인지여부	집중호우 및 홍수	알고있다	929	92.9
		몰랐다	71	7.1
	가뭄	알고있다	907	90.7
		몰랐다	93	9.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알고있다	863	86.3
		몰랐다	137	13.7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알고있다	811	81.1
		몰랐다	189	18.9
	식량문제	알고있다	767	76.7
		몰랐다	233	23.3
	감염병, 질환	알고있다	801	80.1
		몰랐다	199	19.9
	폭염, 열대야	알고있다	978	97.8
		몰랐다	22	2.2
총계			1,000	100.0

-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별 지역간의 인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변화 현상 총 7개 부문의 인지여부와 지역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후변화 현상 총 7개 부문 중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부문 모두 인지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홍수 부문의 인지 수준은 세종(100%) > 강원도(95.7%) > 서울(93.2%) > 충북(93.2%) > 대전(92.9%) > 인천(92.3%) > 충청남도(91.7%) > 광주(8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부문의 인지 정도는 세종(100%) > 강원도(95.7%) > 서울(91.5%) > 충청북도(90.5%) > 인천(88.7%) > 대전(88.6%) > 충청남도(88.5%) > 광주(87.3%)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됨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부문의 경우, 세종(94.4%) > 충청북도(90.5%) > 강원도(88.6%) > 인천(87.3%) > 충청남도(84.5%) > 서울(85.6%) > 광주(84.5%) > 대전(81.4%) 순으로 지역별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부문의 경우, 광주(84.5%) > 충청남도 = 세종(83.3%) > 서울(82.4%) > 대전(80.0%) > 강원도(78.6%) > 인천(78.2%) > 충청북도(75.7%) 순으로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문제 부문에서는 세종(83.3%) > 강원도(82.9%) > 충청북도(81.1%) > 서울(78.6%) > 충청남도(76.0%) > 인천(72.5%) > 대전(71.4%) > 광주(66.2%) 순으로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질환 부문의 인지 수준은 세종(88.9%) > 강원도(85.7%) > 광주(84.5%) > 충청남도(81.3%) > 인천(80.3%) > 서울(78.6%) > 충청북도(78.4%) > 대전(77.1%) 순으로 높게 분석됨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열대야 부문의 인지 정도는 강원도 = 세종(100%) > 충청북도(98.6%) > 서울(98.0%) > 인천(97.9%) > 광주(97.2%) > 충청남도(96.9%) > 대전(94.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기후변화 현상별 인지여부 교차분석 결과

○ 기후변화 현상별 체감여부

-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실제 체감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였고 빈도 분석 결과, 폭염, 열대야(94.1%)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량문제(32.2%)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의 부문별 체감 수준은 폭염, 열대야(94.1%) > 집중호우 및 홍수(76.5%) > 감염병, 질환(73.4%)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58.3%) > 이상 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57.7%) > 가뭄(54.2%) > 식량문제(32.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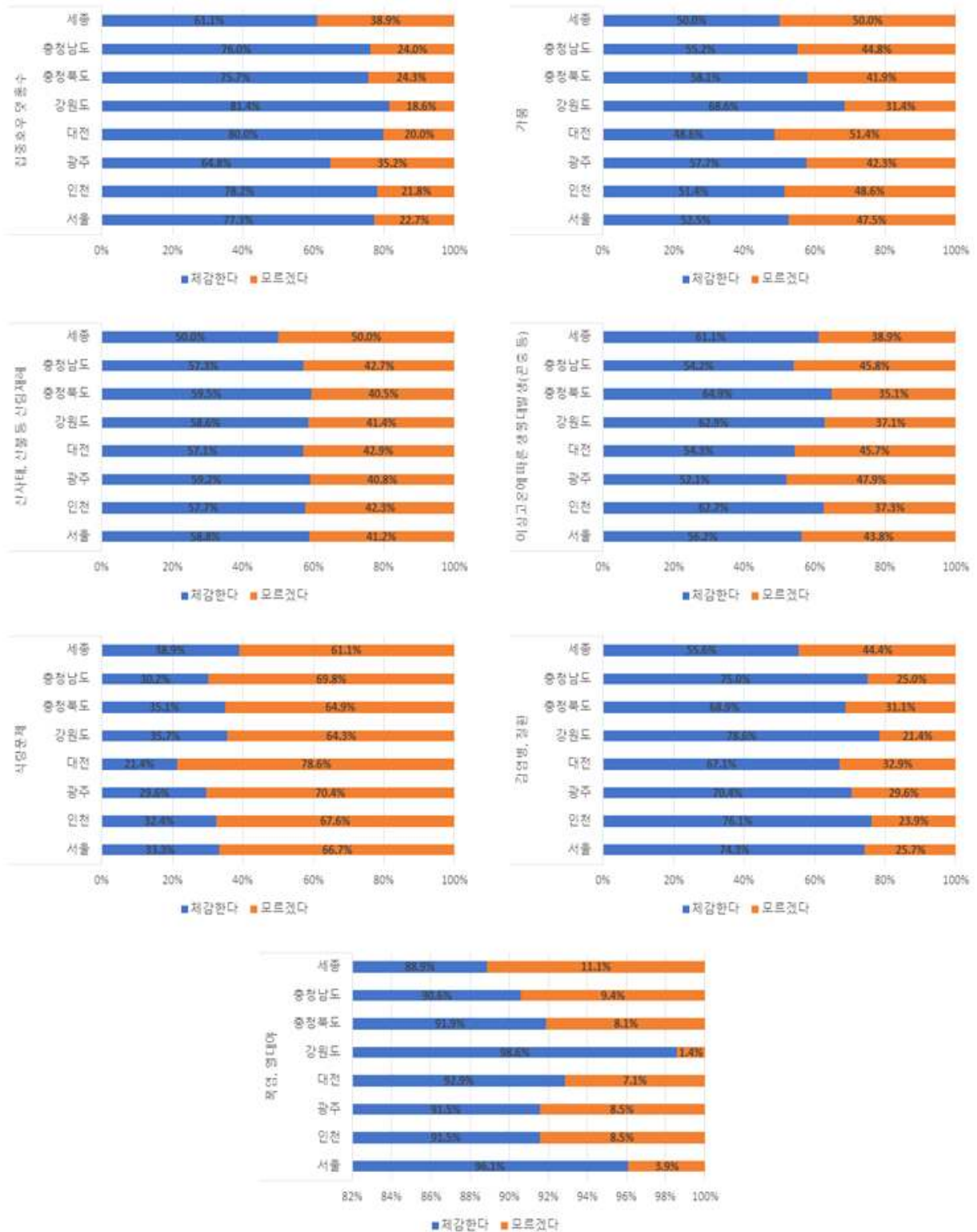
[표 1-6] 기후변화 현상별 체감여부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현상별 체감여부	집중호우 및 홍수	체감한다	765	76.5
		모르겠다	235	23.5
	가뭄	체감한다	542	54.2
		모르겠다	458	45.8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체감한다	577	57.7
		모르겠다	423	42.3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체감한다	583	58.3
		모르겠다	417	41.7
	식량문제	체감한다	322	32.2
		모르겠다	678	67.8
	감염병, 질환	체감한다	734	73.4
		모르겠다	266	26.6
	폭염, 열대야	체감한다	941	94.1
		모르겠다	59	5.9
총계			1,000	100.0

-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 중 부문별 체감 정도를 지역별로 확인하기 위해 기후변화 현상 총 7개 부문의 체감여부와 지역 간의 교차 분석을 실시함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홍수 부문의 체감 정도는 강원도(81.4%) > 대전 (80.0%) > 인천(78.2%) > 서울(77.3%) > 충청남도(76.0%) > 충청북도(75.7%) > 광주(64.8%) > 세종(6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부문의 체감 정도는 강원도(68.6%) > 충청북도(58.1%) > 광주(57.7%) > 충청남도(55.2%) > 서울(52.5%) > 인천(51.4%) > 세종(50.0%) > 대전(48.6%)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됨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부문의 경우, 충청북도 (64.9%) > 강원도(62.9%) > 인천(62.7%) > 세종(61.1%) > 서울(56.2%) > 대전 (54.3%) > 충청남도(54.2%) > 광주(52.1%) 순으로 지역별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부문의 경우, 충청북도(59.5%) > 광주 (59.2%) > 서울(58.8%) > 강원도(58.6%) > 인천(57.7%) > 충청남도(57.3%) > 대전(57.1%) > 세종(50.0%) 순으로 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문제 부문에서는 세종(38.9%) > 강원도(35.7%) > 충청북도 (35.1%) > 서울(33.3%) > 인천(32.4%) > 충청남도(30.2%) > 광주(29.6%) > 대전 (21.4%) 순으로 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질환 부문의 체감 정도는 강원도(78.6%) > 인천(76.1%) > 충청남도(75.0%) > 서울(74.3%) > 광주(70.4%) > 충청북도(68.9%) > 대전 (67.1%) > 세종(55.6%) 순으로 높게 분석됨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열대야 부문의 체감 정도는 강원도(98.6%) > 서울(96.1%)

> 대전(92.9%) > 충청북도(91.9%) > 인천(91.5%) > 광주(91.5%) > 충청남도(90.6%) > 세종(88.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기후변화 현상별 체감여부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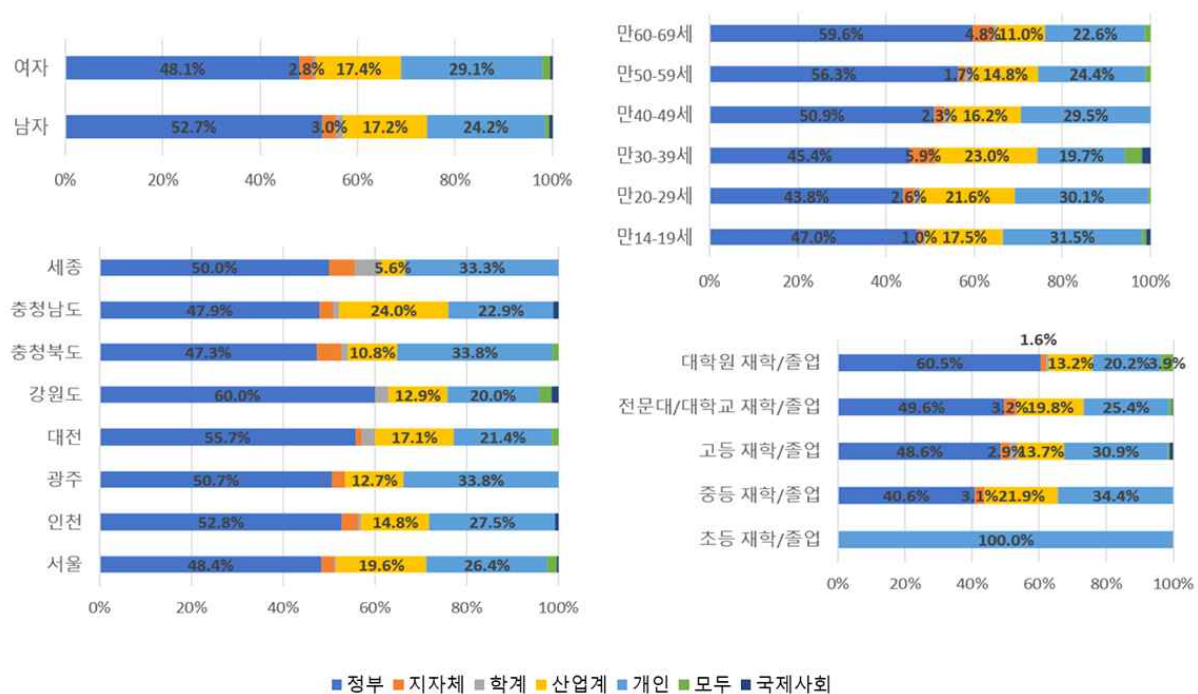
○ 기후변화적응 노력 주체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노력 주체를 묻는 문항의 빈도분석 결과, 정부(50.4%) > 개인(26.6%) > 산업계(17.3%) > 지자체(2.9%) > 모두(1.3%) > 학계(1.0%) > 국제사회(0.5%)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1-7] 기후변화 적응 노력주체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적응 노력주체	정부	504	50.4
	개인	266	26.6
	산업계	173	17.3
	지자체	29	2.9
	모두	13	1.3
	학계	10	1.0
	국제사회	5	0.5
총계		1,000	100

- 기후변화 적응 노력주체와 성별을 교차분석한 결과, 여자의 경우 약 48.1%, 남자의 경우 약 52.7%로 모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와의 교차분석에서는 전 연령대 모두 기후변화 적응 노력 주체를 정부라고 응답하였으며, 정부 다음으로는 노력 주체가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만30-39세의 경우 산업계가 노력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와의 교차분석 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산업계를 기후변화 적응 노력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24.0%)
- 학력과의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 재학/졸업, 전문대/대학교 재학/졸업, 고등 재학/졸업, 중등 재학/졸업의 경우 “정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초등 재학/졸업의 경우 모두 기후변화 적응 노력 주체를 “개인” 이라고 응답하였음(100%)



[그림 1-10] 기후변화 적응 노력주체 교차분석 결과

○ 기후변화교육 경험 여부

- 기후변화 관련 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고 빈도분석 결과, 기후변화교육 수강경험 없음(49.1%) > 학교(교과과정 등)(37.7%) > 사회교육(시민단체, 환경 운동 관련 조직 등)(8.6%) >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4.6%)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1-8] 기후변화교육 경험 여부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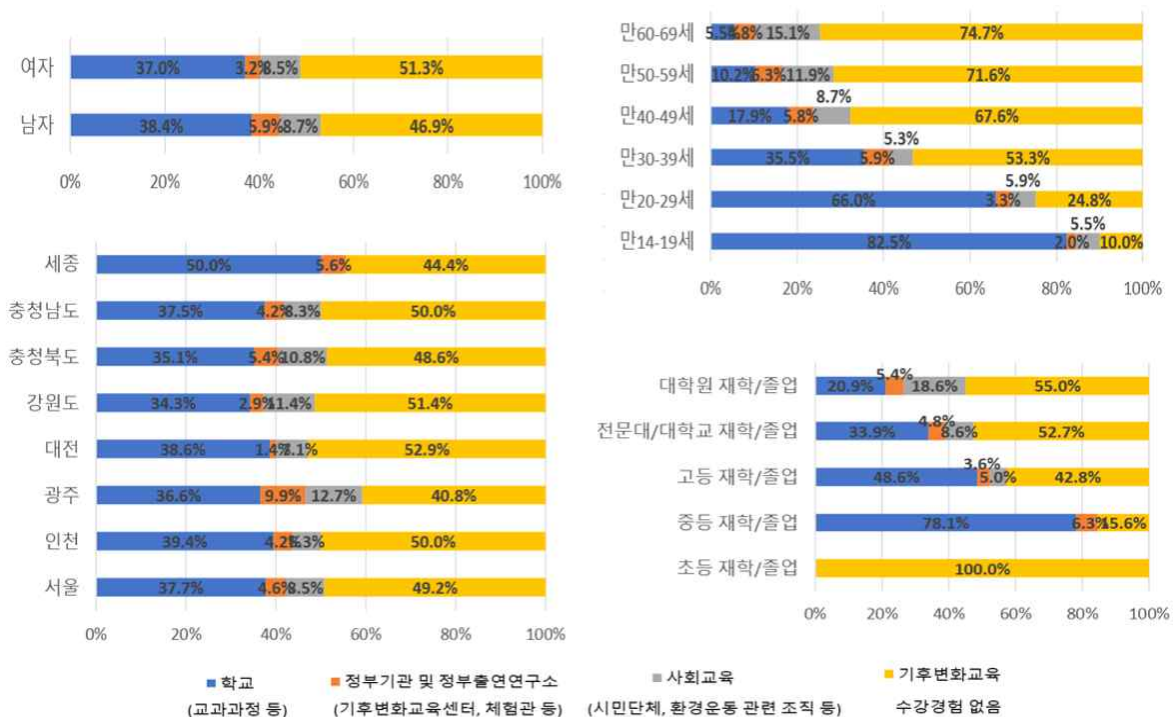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교육 경험여부	기후변화교육 수강경험 없음	491	49.1
	학교(교과과정 등)	377	37.7
	사회교육 (시민단체, 환경 운동 관련 조직 등)	86	8.6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기후변화교육센터, 체험관 등)	46	4.6
총계		1,000	100

- 기후변화교육 경험 여부에 대하여 성별을 교차분석한 결과, 여자의 경우 약 51.3%, 남자의 경우 약 46.9%로 기후변화 관련 교육 수강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경험에 있는 경우 학교(교과과정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여자, 남자 모두 가장 높았음(37.0%, 38.4%)

- 연령대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만 60-69세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교육 수강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74.7%), 만14-19세는 학교(교과과정 등)에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82.5%).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학교(교과과정 등)에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거주지와의 교차분석 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기후변화 교육 수강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지역 평균(약 48.4%)보다 높게 나타남(약 50.0%)
- 학력과의 교차분석 결과, 대학원 재학/졸업, 전문대/대학교 재학/졸업, 초등 재학/졸업생의 경우 기후변화교육 수강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고등 재학/졸업, 중등 재학/졸업생의 경우 모두 교육 경험이라는 응답보다 학교(교과과정 등)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음



[그림 1-11] 기후변화교육 경험 여부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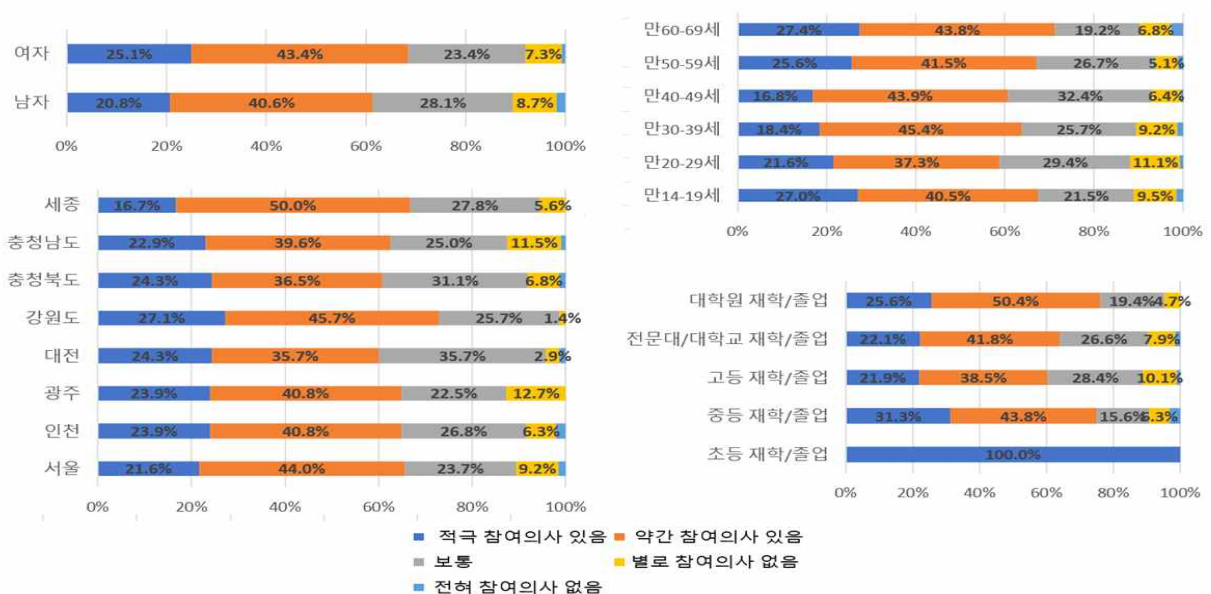
○ 기후변화교육 참여의사 여부

-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를 빈도분석한 결과, 약간 참여의사 있음(42.0%) > 보통(25.8%) > 적극 참여의사 있음(22.9%) > 별로 참여의사 없음(8.0%) > 전혀 참여의사 없음(1.3%)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1-9] 기후변화교육 참여의사 여부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빈도 및 비중	
		빈도(명)	비중(%)
기후변화 교육 참여의지	적극 참여의사 있음	229	22.9
	약간 참여의사 있음	420	42.0
	보통	258	25.8
	별로 참여의사 없음	80	8.0
	전혀 참여의사 없음	13	1.3
총계		1,000	100

- 기후변화교육 참여의사 여부에 대하여 성별을 교차분석한 결과, 여자의 경우 약 43.4%, 남자의 경우 약 40.6%으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하여 약간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적극 참여 의사가 있음(25.1%), 남자의 경우 보통(28.1%)가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연령대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만 60-69세의 교육 참여의사가 가장 높고(약 71.2%), 만 20-29세의 교육 참여의지가 가장 낮았음(약 58.9%)
- 거주지와의 교차분석 결과,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 적극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강원도지역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지역이 16.7%로 가장 응답 비율이 낮음. 충청남도의 경우 22.9%로 조사지역 평균인 약 23.1%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력과의 교차분석 결과, 초등 재학/졸업생의 경우 기후변화교육에 적극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00%)(단, n=1), 고등 재학/졸업생의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음(21.9%)



[그림 1-12] 기후변화교육 참여의사 여부 교차분석 결과

6. 종합 분석

- 기후변화의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전국 평균 8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충청남도의 경우 85.5%로 전국 평균보다 약 1.7%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가장 인지 수준이 높은 지역은 세종(94.5%)
 - 가장 인지 수준이 낮은 지역은 광주(78.9%)
- 기후변화와 온난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묻는 문항에서는 전국 평균 74.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충청남도의 경우 69.8%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낮은 수준의 기후위기 인지 수준을 보임
 - 가장 인지 수준이 높은 지역은 서울(81.9%)
 - 가장 인지 수준이 낮은 지역은 세종(66.7%)
- 충청남도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에 대해 인지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총 7개 부문 중 3개 부문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감염병, 질환), 4개 부문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집중호우 및 홍수, 가뭄, 식량문제, 폭염, 열대야)
 -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 전국 평균 86.3% < 충남 86.5%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 전국 평균 81.1% < 충남 83.3%
 - 감염병, 질환 : 전국 평균 80.1% < 충남 81.3%
 - 집중호우 및 홍수 : 전국 평균 92.9% > 충남 91.7%
 - 가뭄 : 전국 평균 90.7% > 충남 88.5%
 - 식량문제 : 전국 평균 76.7% > 충남 76.0%
 - 폭염, 열대야 : 전국 평균 97.8% > 충남 96.9%
- 충청남도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에 대한 체감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총 7개 부문 중 2개 부문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가뭄, 감염병 질환), 5개 부문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집중호우 및 홍수,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식량문제, 폭염, 열대야)
 - 가뭄 : 전국 평균 54.2% < 충남 55.2%
 - 감염병 질환 : 전국 평균 73.4% < 충남 75.0%
 - 집중호우 및 홍수 : 전국 평균 76.5% > 충남 76.0%
 -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 전국 평균 57.7% > 충남 54.2%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 전국 평균 58.3% > 충남 57.3%

- 식량문제 : 전국 평균 32.2% > 충남 30.2%
- 폭염, 열대야 : 전국 평균 94.1% > 충남 90.6%
-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노력 해야하는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 조사지역 모두 중앙정부라고 응답하였음
 - 정부 다음으로 노력 주체가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타 지역에서는 모두 “개인” 이 높게 집계되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산업계” 가 24.0%의 비율로 가장 높게 집계됨
- 기후변화 관련 정보 인지 경로를 묻는 문항에서 조사지역 모두 언론매체(TV/라디오/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하였음
 - 충청남도의 경우, 인터넷 및 관련 홈페이지 인지경로가 42.7%의 비율로 타 지역 평균 29.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낮은 연령대일수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주변사람, 정부기관/지자체 홍보자료, 관련 모임 및 단체, 학교수업, SNS 등)
- 기후변화 관련 교육 경험여부와 수강 기관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49.1%가 기후변화교육 수강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수강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학교(교과과정 등)(37.7%) > 사회교육(시민단체, 환경 운동 관련 조직 등)(8.6%) >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4.6%) 순으로 수강기관 비율이 높았음
 - 충청남도의 경우, 기후변화 교육 수강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0%로 전체 지역 평균인 약 48.4%보다 높게 나타남
 - 만 60-69세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교육 수강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74.7%), 만14-19세는 학교(교과과정 등)에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82.5%).
 -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학교(교과과정 등)에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기후변화교육 기회가 제공될 때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에서 적극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충청남도 기준 22.9%로 조사지역 평균인 약 23.1%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참여의지를 보인 지역 : 강원도(27.1%)
 - 가장 낮은 참여의지를 보인 지역 : 세종(16.7%)
 - 만 60-69세의 교육 참여의사가 가장 높고(약 71.2%), 만 20-29세의 교육 참여의사가 가장 낮았음(약 58.9%)

7. 설문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조사																																													
<p>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기관] (재)충남연구원,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조사기관] 주식회사 디앤알</p>																																													
SQ	응답자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																																												
<p>SQ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서울 ②인천 ③광주 ④대전 ⑤세종 ⑥강원도 ⑦충청북도 ⑧충청남도</p> <p>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자 ②여자</p> <p>SQ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세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p> <p>S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초등학교 재학/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전문대학/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⑥기타()</p>																																													
Q	기후위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p>Q1. 귀하께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자세히 알고있다 ②어느정도 알고있다 ③들어본 듯 ④잘 모르겠다 ⑤전혀 모르고 있다</p> <p>Q2.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언론매체(TV/라디오/신문 등) ②인터넷 및 관련 홈페이지 ③주변사람(가족/친인척/친구/동료 등) ④정부기관/지자체의 홍보자료 ⑤관련 모임 및 단체 ⑥들어본 적 없음 ⑦기타()</p> <p>Q3.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지의 기후변화와 온난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심각하다 ②다소 심각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전혀 심각하지 않다</p> <p>Q4. 귀하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다음 보기는 기후변화 현상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보기별로 <u>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의 인지여부</u>와 <u>물소 느끼는 체감여부</u>를 각각 체크하여 주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기후변화 현상</th> <th colspan="2">인지여부</th> <th colspan="2">체감여부</th> </tr> <tr> <th>알고있다</th> <th>몰랐다</th> <th>체감한다</th> <th>모르겠다</th> </tr> </thead> <tbody> <tr> <td>3-1. 집중호우 및 홍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2. 가뭄</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5. 식량문제</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6. 감염병, 질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7. 폭염, 열대야</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기후변화 현상	인지여부		체감여부		알고있다	몰랐다	체감한다	모르겠다	3-1. 집중호우 및 홍수	①	②	③	④	3-2. 가뭄	①	②	③	④	3-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①	②	③	④	3-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①	②	③	④	3-5. 식량문제	①	②	③	④	3-6. 감염병, 질환	①	②	③	④	3-7. 폭염, 열대야	①	②	③	④
기후변화 현상	인지여부		체감여부																																										
	알고있다	몰랐다	체감한다	모르겠다																																									
3-1. 집중호우 및 홍수	①	②	③	④																																									
3-2. 가뭄	①	②	③	④																																									
3-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곤충 등)	①	②	③	④																																									
3-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①	②	③	④																																									
3-5. 식량문제	①	②	③	④																																									
3-6. 감염병, 질환	①	②	③	④																																									
3-7. 폭염, 열대야	①	②	③	④																																									
<p>Q5.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후변화적응'입니다.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다음 중 누가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정부 ②지자체 ③학계 ④산업계 ⑤개인 ⑥기타()</p> <p>Q6.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육 경험이 있다면, 수강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학교(교과과정 등) ②정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기후변화교육센터, 체험관 등) ③사회교육(시민단체, 환경운동 관련 조직 등) ④기후변화교육 수강경험 없음 ⑤기타()</p> <p>Q7. 귀하께서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회가 제공될 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적극 참여의사 있음 ②약간 참여의사 있음 ③보통 ④별로 참여의사 없음 ⑤전혀 참여의사 없음</p>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책임	이상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연구참여	윤수향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원 황은영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원 강민주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원

정책지원과제(기후변화) 2021-05
2021년 충청남도 기후위기대응 인식도 조사

발행일 : 2021년 06월

발행인 : 충남연구원장

발행처 :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3225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360

홈페이지 www.cni.re.kr / www.shari.re.kr
